제 12강 영원한 언약의 약속

1. 영원한 약속

(1) 하나님의 약속

약속(納束)은 한자로 '약속할 약 , 묶을 속'으로 '장래의 일에 대하여 상대자에게 언명하는 일'이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들이다.

신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약속'이란 말로 압축되어 기록되어 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으로 성취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여 세워진 것이요(히 8:6, 9:15, 12:24),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며, 결코 파기될 수 없는 것이다(히 6:18, 요일 2:25).

(2)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당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유효한 언약이다.

① 영원한 말씀으로 맺어진 약속이기 때문이다(창 9:16, 17:7,13,19, 출 31:16, 레 24:8, 삿 2:1 , 삼하 23:5, 대상 16:17, 시 105:8-10,111:5, 9, 사 24:5, 55:3, 겔 16:60, 37:26).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말씀으로 맺어진다(시 105:8, 10).

② 영원하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영원한 것이다(신 33:27, 시 90:1-2, 93:2, 102:12, 사 40:28, 애 5:19).

③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언약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다(시 105:42, 106:45, 눅 1:72).

④ 미쁘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이다(롬 3:3, 고전 1:9, 10:13, 고후 1:18, 살후 3:3, 히 11:11, 벧전 4:19, 요일 1:9).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그 뜻을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영원하다(히 6:17).

2. 구약의 율법 아래의 특징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인생은 율법 아래 놓여 있었다.

(1) 죄 아래의 상태

(갈 3:22-23)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3)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가두었으니'는 히브리어 '쉉클레이오'(συγκλείω)로 '에워싸다'라는 뜻으로 '완전히 포위된 상태'를 가리킨다.

'매인 바 되고'는 히브리어 '프루레오'(φρουρέω)로 '지키다, 감시하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생은 죄에 완전히 포위되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롬 6:14).

(2)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의 상태이다.

(갈 4:2)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후견인'은 헬라어 '에피트로포스'(ἐπίτροπος)로 어린 상속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성장하도록 양육과 보호를 담당했던 자를 의미한다.

'청지기'는 헬라어 '오이코노모스'(οἰκονόμος)로 어린 상속자가 장성할 때까지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이다.

(갈 3:24)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몽학선생(蒙學先生)은 헬라어 '파이다고고스'(παιδαγωγός)로 '가정교사'를 뜻한다.

(3)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의 상태이다.

(갈 4:3)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초등 학문'은 헬라어 '스토이케이온'(στοιχεῖον)으로 '기본 원리, 첫째 원리'라는 뜻으로 '초보적이고 일차적인 가르침, 기본적인 가르침'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함을 이루는 초등학문의 완성자이다(갈 4:4-5).

3. 새 언약의 특징

(1) 새 언약은 미리 정하신 언약이다.

(갈 3:17)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 삼십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주전 1446년경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이래 그것을 지켜 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 율법보다 430년 먼저 생긴 것이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때로부터 43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 1876년인데, 이때는 야곱의 70가족이 애굽에 들어간 해이다.

1876년 애굽으로 들어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확증해 주셨다(창 46:1-7).

(2) 새 언약은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또한 옛 언약은 무흠(無欠)하지 않았다.

(히 8:7)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무흠'은 헬라어 '아멤프토스'(ἄμεμπτος)로 '흠잡을 것이 없는, 완전한'이라는 뜻이다.

이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대치되었으며, 옛 언약은 새 언약 안에서 완전케 된다.

(3)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되는 언약

옛 언약이 돌판에 율법을 새기는 것이었다면(고후 3:7) , 새 언약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고후 3:3).

(4) 새 언약은 완전한 '죄 사함'의 언약이다.

구약의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죄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고후 3:9).

율법은 정죄를 통하여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수는 있지만, 결코 그 죄를 사할 수는 없다(롬 3:20).

그러나 새 언약은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4. 영원한 언약의 약속

(1) 자손의 약속.

하나님께서 '한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2) 영생의 약속

이 영생의 약속을 소유할 수 있는 자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요 3:16, 갈 3:22, 29).

(3) 성령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야곱의 자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다(사 44:3).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손들에게 '새 신', '새 영'을 약속하셨다(겔 11:19, 36:26).

(4) 재림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보이시고(행 1:3, 9, 고전 15:4-6), 승천하실 때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라고 말씀했다(행 1:9-11).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초림의 사건 이후에 성경은 재림을 약속하고 있다(마 16:27-28, 24:44, 25:31, 26:64, 살전 3:13, 4:16-17, 살후 1:7, 계 1:7, 22:20).

(5) 영원한 기업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창 13:15, 17:8).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에게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이 약속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히 4:1)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벧후 1:4) 이다.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히 9:15).

이 영원한 기업의 신약적 표현은 '유업'(κληρονομία)이다.

이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